

□수능 문제유형 분석 및 출제자 의도 파악

-2019 수능 기출유형 기준-

▶ 수능에 나오는 지문(글)은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근거/예시)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 또는 두 문단 이상의 완성된 글이다. 주로 두괄식 문단으로 중심문장의 위치가 문단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문제의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글의 중심생각을 찾는 게 중요하다!!

1. 대의파악문제 - 목적, 심경, 주장, 함축 의미추론(19년 추가), 요지, 주제, 제목 유형.

→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주제)을 찾는 유형

→ 무엇에 대한 글인지 전반부에서 중심소재를 파악하며 1차적으로 단서를 얻음.

→ 글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어구에 관심을 가지며, 중심내용을 전달하는 신호가 나오면 중점적으로 결정적 정답에 단서를 얻음.

(중심내용을 전달하는 신호 - 이미 유인물 나감, 유인물 참고)

→ 단, 요지, 주장, 목적 찾기 유형은 경우에 따라 후반부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음.

2. 세부정보 파악하기 문제 - 일치여부 유형

1) 일반문, 안내문 일치유형

→ 주어진 지문의 전개 순서와와 선택지의 순서가 거의 똑같으니 관련된 내용을 1:1 매치를 시켜 비교해가며 확인함.

2) 도표 일치유형

→ 비교표현에 주목(비교급)

→ 등위표현에 주목(최상급 / 서수)

→ 증가, 감소 표현에 주목

→ 합 / 차 / 배수 / 분수 / % 표현에 주목

→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표현에 주목

◆증가 : increase, rise, go up, grow, skyrocket

◆감소 : decrease, drop, fall, decline, plummet

◆배수 : twice, ~ times, double, triple

◆분수 / % : one(a) third(1/3), two thirds(2/3), two out of five(2/5), a quarter(1/4), a half(1/2), 20%, 50%

◆차 : gap / difference

◆합 : sum, total, combine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 sharply, dramatically, drastically, steadily, slowly, continually, rapidly, slightly

◆변동, 오르락내리락 : fluctuate, rising and falling, up and down

◆대략(거의, 약) : approximately, roughly, nearly, almost, about, around

◆기타 자주 쓰이는 표현 : improve, surpass, exceed, outnumber, remain, plummet, equal, the same, take up, account for, be true for, exception, compared , previous, narrow, widen, rank

3. 어법문제 - 밑줄 친 어법유형 / (A), (B), (C)의 두 개의 표현 중 하나 고르기 유형

→기출문제를 통해 각 선택지마다 무엇을 묻는 문법사항인지 파악

→대부분 모든 어법문제는 선택지가 속한 전체 한 문장 안에 무엇을 묻는 문법사항이고, 따라서 왜 답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꼭 있음. 이 단서와 답과의 관계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중요!!

※2015년 수능부터 밑줄 친 어법 유형만 나오고 있음.

4. 어휘문제 - 밑줄 친 어휘선택 유형 / (A), (B), (C)의 두 개의 표현 중 하나 고르기 유형

1) 밑줄 친 어휘 선택 유형 (반의어 문제)

- 지문의 전반부에서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어울리는 어휘선택
- 선택지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전후 문장의 맥락 속에서 어울리는 어휘선택
- 분명한 반의어가 존재하는 단어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에 단어의 반의어뿐만 아니라 부정어 (no, not)의 유무에 따라 그 문장의 내용상 반대되는 내용이 답인 경우도 있음.

2) (A), (B), (C)의 두 개의 표현 중 하나 고르기 유형 (반의어 또는 형태 유사어)

- 지문의 전반부에서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어울리는 어휘선택
- 선택지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전후 문장의 맥락 속에서 어울리는 어휘선택

※2018, 2019 수능에서 밑줄 친 어휘 선택 유형이 나오고 있음.

5. 지칭 추론 - 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2019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음)

1) 처음부터 주역(주인공) 두 개가 제시된 경우

- 밑줄 친 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지 ①번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
- 선택지 ①번을 다른 선택지에 대입하며 ①번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다 어색하면 다른 주인공을 대입하여 정확하게 파악

2) 1명의 주역(주인공)이 글을 이끌어 가다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는 경우

- 밑줄 친 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지 ①번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
- 선택지 ①번을 다른 선택지에 대입하며 ①번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다 새로운 대상이 등장한 이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주인공을 대입하여 정확하게 파악
- 새로운 대상이 등장한 이후의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빈칸추론

- 빈칸은 곧 중심내용이다. 글의 전반적인 중심내용을 상징하는 단어, 구, 절이 빈칸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빈칸의 위치는 전반부에 있거나(중간에 있어도 내용상 전반부에 속함), 후반부에 있다. 글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빈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즉 답에 대한 단서는 빈칸 다음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이라면 위에서 답의 단서를 주고 옴. 결론적으로 빈칸과 가까울수록 빈칸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중심내용을 전달하는 신호를 통해 힌트를 얻도록 노력.)

7. 연결사

- 연결사란, 앞 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이다. 선택지의 연결사를 처음부터 넣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라. 글의 구성상 연결사는 역접/예시/결론이나 재진술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 선택지에 있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나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를 먼저 넣어보며 파악해라.
- 기출을 보면 역접과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답인경우가 제일 많고 답이든 아니든지 간에 역접과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는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이 아니더라도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진다.

※2016년 수능부터 출제되고 있지 않음.

8.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찾기

- 전반부에서 중심내용 파악.
- 선택지 ①번 전에 또는 선택지 ①번이 중심문장이며 그 중심내용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음.
- 오답은 주로 바로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지엽적인 정보를 다루는 내용으로 만들. 또는 동일소재 이기는 하나 전체흐름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만들.

9. 이어질 글의 순서 찾기

→(A), (B), (C) 글의 순서 유형은 주어진 글(박스)이 중심문장인 경우가 많음.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근거가 되는 내용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

→연결사(접속사, 부사), 대명사(지시, 인칭, 부정), 지시형용사, 관사, 같은 어휘(유사 뜻을 가진 어휘)에 주목하여 앞뒤 관계의 전개순서를 파악

10.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주어진 문장(박스) 안에 연결사, 부사, 대명사(지시, 인칭, 부정), 지시형용사에 주목하여 앞뒤 연결고리를 파악함. 이와 같은 경우 저러한 단서로 어떤 특정 문장 뒤에 위치됨을 알 수 있다.

→같은 어휘(유사 뜻을 가진 어휘)에 주목하여 인접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음.

※주어진 문장 안에 어떠한 단서도 없다면 외부(지문)에 답에 단서가 있는 것임. 즉, 선택지 뒤 문장에 연결사, 부사, 대명사(지시, 인칭, 부정), 지시형용사 있어 주어진 문장(박스)이 어떤 특정 문장 앞에 위치됨을 알 수 있다.

11. 요약문 완성

→ 글의 중심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로 대의파악문제유형과 접근방식이 동일함

→ 지문에서 중심내용을 전달하는 핵심어구가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대박!!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동의어나 유의어 또는 대표어 등으로 나오기 마련.

12. 장문 - 단일장문 유형과 순서장문 유형

→ 각각 2문항,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모두 앞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

→ 순서장문인 경우 문제의 번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글의 순서를 찾으며 글을 읽어가며 3문항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풀어야함.

→ 마지막 45번 문항은 내용일치여부 문제와 비슷하며 실질적인 순서가 아닌 (A)-(B)-(C)-(D)순서대로 선택지①~⑤가 되어있어 찾기가 쉬움. 아울러, 그대로 해석되어있지 않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 순서장문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이야기, 일화, 경험담 구성)의 글의 유형은 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화체를 중심으로 경험담과 일화를 소개한 후 후반부에 글의 교훈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 문제유형과 상관없이 글의 전반부에서 중심내용을 파악하며 지문을 추론하며 읽는 습관이 필요!!

▶ 대화체“ ”는 주로 예시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중심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